

광주시 내년 생활임금 1만원시대 눈앞

용역결과 8505원~9511원 제시... 다음달 10일까지 결정 청소·경비 등 삶의 질 향상 위해 도입... 올 1000명 수혜

광주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1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일 광주시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한 생활임금 적용 확대 및 운영모델 연구 용역 결과 광주형 생활임금 모델은 시간당 8505원에서 최고는 9511원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은 실제 지출액에 주거비와 통신비, 교통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반영했으며, 적용률은 70~100%까지 4단계로 구

분했다. 70% 적용시 시급 8505원, 80% 8840원, 90% 9175원, 100% 9511원 등이다. 시는 내년 생활임금은 전국 최초로 자치구와 함께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8410원으로, 올해 9000원 돌파는 가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생활임금은 4인 기준 가정의 근로자가 주 40시간의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교육비·교통비·문화여

가 비용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광주시와 자치구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청소, 경비 등 공공부문에 도입했다. 올 6월말 기준 시와 자치구, 출자 출연기관에서 수혜 대상은 모두 569명이다.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1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한다. 시는 그동안 정부 최저임금의 130%를 생활임금으로 고시했으나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도입, 적용하기로 하는 등 이른바 광주형 생활임금제를 정착시킨

다는 계획이다. 올해 기준 생활임금은 광산구가 8600원으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광주시(8410원), 서구(7850원), 남구(7760원), 동구(7570원), 북구(7560원) 순이다. 시는 생활임금 지급에 따른 인건비는 적용할 수준에 따라 100억원 안팎이며, 추가 비용은 2억~8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한다. 광주시는 용역결과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8월말 광주시생활임금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뒤 9월 10일까지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이야기 발굴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

민인철 광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광주·전남 이야기 자원을 유통하는 플랫폼 구축과 한국문화기술연구원(CT 연구원) 설립 등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광주전남연구원 민인철 책임연구위원은 10일 ‘광전리더스 INFO(인포)’에 실은 연구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문화산업 융합 콘텐츠 육성·지원 정책 등에 대한 광주·전남의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 연구위원은 “광주와 전남은 문화콘텐츠 산업 간 인력양성, 기술교류, 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 협력의 영역이 넓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풍부한 유무형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은 각자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와 전남의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내 아시아 문화연구소 등이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민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그는 아시아 문화전당, 혁신도시 문화기관 등과 연계할 수 있는 한국 문화기술연구원을 설립해 문화기술 전문 연구를 맡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 연구위원은 “광주·전남에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이끌 선도기업이 없고 산업구조가 영세해 자생력이 약하다”며 “지역의 열악한 문화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지역 간, 지역 내 콘텐츠 생산 주체들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10일 오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국인터넷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5차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비엔날레·농업박람회 성공 개최 힘 모은다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회... 혁신도시 시즌 2 적극 동참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시즌2'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또 광주비엔날레와 국제농업박람회, 빛가람 페스티벌에 참여해 함께 즐기기로 했다.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관계 행정기관 23곳이 참여하는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는 10일 나주 혁신도시 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 공동회장인 여인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백기

열의를 갖고 참여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정주여건 개선사항이나 혁신도시 발전방안 등과 관련된 의견도 나눴다. 협의회는 혁신도시 이전 16개 공공기관과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 교육청, 나주경찰서, 광주전남연구원 등 23개 기관이 빛가람혁신도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공동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 구성됐다. 농수산식품기술기획위원이 내년에 들어오면 16개 기관 모두 이전을 마무리하게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조선대병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

국비 298억 지원 받아

신종감염병 전파 차단

질병관리본부에서 공모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에 조선대병원이 선정돼 향후 병원설립비로 국비 298억원을 지원 받는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질병관리본부가 국가방역 체계 개편 방안의 하나로 재난 수준의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호남, 충청, 영남 등 3개 권역 소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공모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응모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10일 조선대병원을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치명률이 높고, 전염력이 높은 고위험 신종감염병의 집단 발병에 대비한 시설이다.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의 감염병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환자 이동을 최소화해 지역 간 전파를 차단하고 환자 위험도에 따른 적정 진료료가 가능하게 된다. 신종감염병은 에볼라 등 바이러스성 출혈열,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두창·페스트 등 생물테러 감염병 등이다. 조선대병원은 지하 2층 지상 5층(8만 2645㎡), 36병상 규모로 총사업비 330억원(국비 298억원 자부담 32억원)을 들여 별도 부지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축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남광주 밤기차야시장 오늘 정상 개장

천장 구조물 재설치

천장 구조물 추락 사고가 발생한 남광주 밤기차야시장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11일 정상 개장한다. 남광주야시장은 지난 7월 12일 오후 급작스럽게 천장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사고 당일 2차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영업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구조안전 기술사의 자문을 받아 밤새 응급조치를 시행했다. 또 사고에 따른 인명 및 물적피해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했다. 시설물의 경우 구조안전기술사의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8월3일부터 10일까지 이용객이 없는 야간시간을 이용, 천

장 구조물을 재설치하고 잔존구간에 대한 보강공사를 받았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말까지 24개 시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시는 현장에서 수렴된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전한 시장이 되도록 시설물 현대화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전통시장 노후화와 안전불감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화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까지 대인시장과 남광주해뜨는시장, 남광주시장, 양동수산시장, 월곡시장의 노후전선을 교체했다. 말바우시장, 양동건어물시장 등의 노후전선은 하반기 중 교체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공익형 노인 일자리 단가 높인다

월 5만원 인상... 사업량도 확대

전남도는 정부의 일자리 추경 확정에 따라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의 단가를 인상하고, 사업량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사업은 당초 591억 원을 투입해 2만6932명에게 제공할 계획이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추경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비 등을 추가로 확보해 내년에 들어오면 16개 기관 모두 이전을 마무리하게 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익활동비 단가도 애초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을 인상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노인 일자리 수 등을 조사하고 보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 추가 사업량을 통보했다. 앞으로 정부 추경 확정에 따른 도비 추가 매칭비 19억여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오는 12월까지 5개월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51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만5400여 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Hanwha Q CELLS 한화큐셀

시중가 600만원 / 650만원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제품
4만7천원부터

LG 전자모듈 25년 효율보증 12년 무상A/S
현대솔라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마세요!

경시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06(해가온빌딩 1층)

의료광고심의필 제 170630-중-83294호

마음으로 다가가자는 **첨단우리병원**

“어깨 통증과 손저림! 목 디스크일까요? 아니면 어깨 문제일까요?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시다면 목디스크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비수술, 부분마취, 척추 치료는 첨단우리병원!

세심한 검사와 정밀한 진단으로 진료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